

“항·필·제·사”, “항생제는 필요할 때만, 제대로 사용해요”

- 질병관리청, 2023년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주간(11.18.~11.24.) 기념, 항생제 적정 사용 홍보를 위한 캠페인 실시 및 정책 포럼 개최
- '22년 항생제 내성 인식도 조사 결과, 약 74%가 항생제의 용도 잘못 이해
- 일반인과 의료인 모두 항생제 사용에 대한 인식개선이 시급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11월 18일부터 일주일간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주간’을 맞아, 항생제 내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올바른 항생제 사용문화 정착을 위한 ‘2023년 항생제 내성 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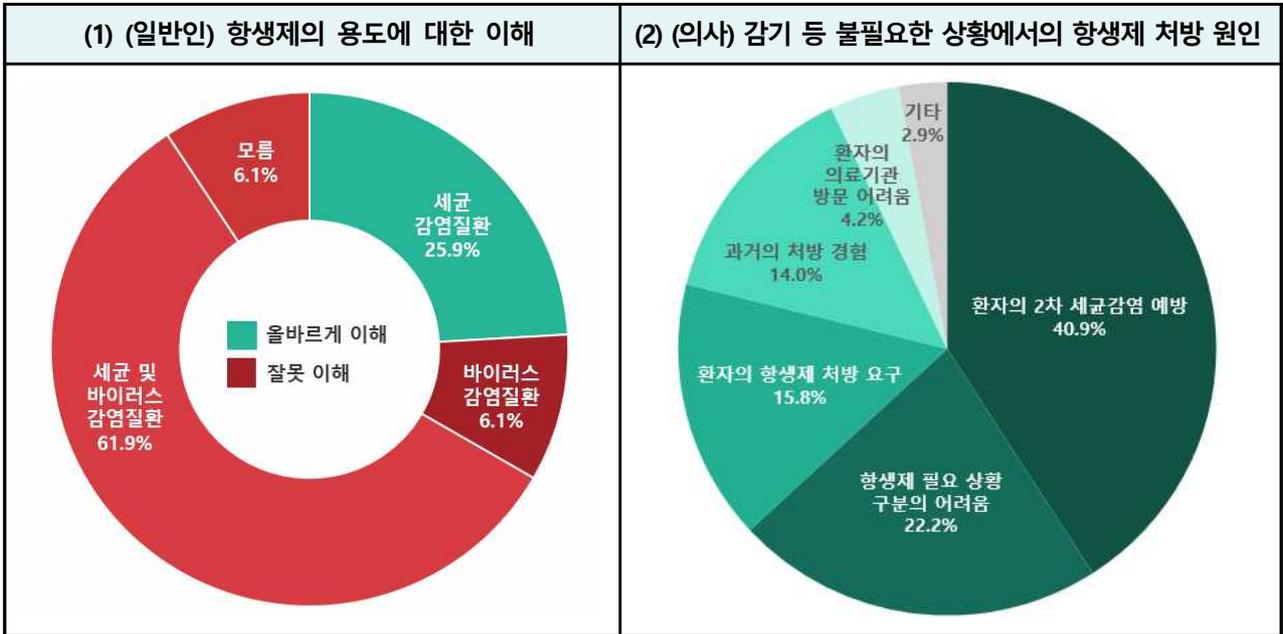
세계보건기구(WHO)는 2015년 「항생제 내성 글로벌 행동계획*」에 따라 매년 11월 18일에서 24일까지를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주간’으로 지정하고, 국가별 실정에 맞는 캠페인을 운영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이 기간을 활용해 2017년부터 매년 일반 국민과 의료계의 항생제 적정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집중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 5대 전략목표 중 하나로 ‘효과적인 의사소통·교육을 통한 이해 및 인식 증진’ 포함

질병관리청에서 수행한 2022년 항생제 내성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많은 국민들이 세균 감염질환이 아닌 경우도 항생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등 항생제의 용도에 대해 잘못 이해(약 74%)하고 있었다.

의사가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을 하게 되는 경우는, ▲2차 세균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처방하는 경우가 40.9%로 가장 높았고, ▲항생제 필요상황을 구분하기 어려워서가 22.2%였으며, ▲환자 요구로 항생제를 처방하는 경우가 15.8%였다.

(붙임1 참조)



항생제 내성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항생제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적절한 항생제를 선택하여 적정 용량과 치료 기간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항생제 내성의 출현에 ‘항생제 오남용’이 주요 원인임을 항생제 사용자와 의료인(처방권자)이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국내 인식주간 캠페인은 항생제 적정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항생제는 필요할 때만, 제대로 사용해요(항·필·제·사!)”라는 표어를 슬로건으로 정하였다. 대상자별 특성에 따른 세부 메시지를 담은 홍보물을 제작하여 질병관리청 누리집에 게재하고, 인식주간이 포함된 11월 한 달간 질병관리청 누리소통망, 민간전광판, 라디오 음원 광고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다. (붙임2 참조)



올해는 항생제 사용량이 많은 어린이와 보호자 대상 항생제 내성 예방수칙 홍보 강화를 위해 서울역 2층 대합실 맞이방에서 홍보부스(11.17.(금)~11.21.(화), 5일간)를 운영한다.

부스는 홍보물 전시존, 항생제 내성 예방 처방전 꾸미기 체험존, 내성잘알(잘 아는 사람) 퀴즈존, 어린이 포토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방문객들에게 항생제 사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

11월 22일(수)에는 오전 10시부터 서울에서 대한항균요법학회와 공동으로 ‘2023년 항생제 내성 포럼’을 개최한다. 행사는 “항생제 적정 사용”을 주제로 ▲국내외 정책 및 연구현황 공유, ▲학술발표, 정부 부처와 전문가, 언론, 제약사 등이 항생제 내성 관리 방향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는 ▲패널 토의 등 총 3부로 운영되며,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에 헌신한 ▲유공자 표창 수여식도 함께 있을 예정이다. (붙임3 참조)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향후 신종 감염병의 지속 출현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감염취약자 증가 등으로 항생제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항생제 남용은 ‘조용한 팬데믹’이라 불릴 만큼 심각한 보건 위협이 되는 주제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 부처와 의료기관, 사회 각 분야 협력을 통해 부적절한 항생제 사용량을 줄이고 항생제 적정 사용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붙임> 1. 2022년 항생제 내성 인식도 조사결과
 2. 2023년 항생제 내성 예방 캠페인 홍보물
 3. 2023년 항생제 내성 포럼 일정표

담당 부서 <총괄>	의료안전예방국 항생제내성관리과	책임자	과 장	최연화 (043-719-7530)
		담당자	연구관	서승희 (043-719-7531)
		담당자	주무관	정가영 (043-719-75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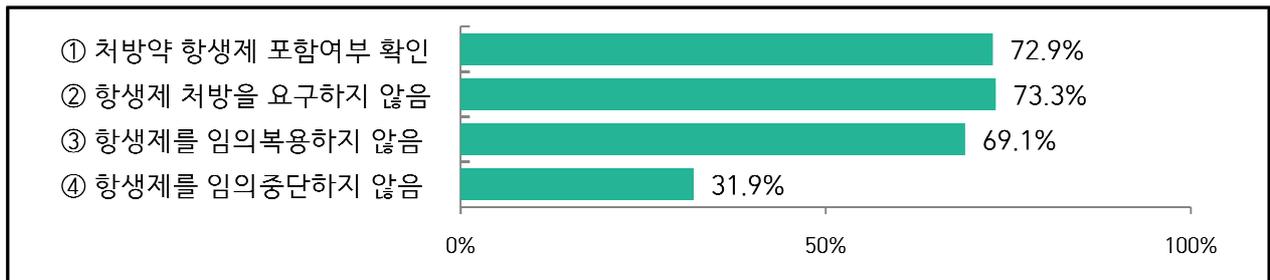
◀ 조 사 개 요 ▶

- ▶ (조사대상) 일반인 800명, 의사 1,046명
- ▶ (조사기간) 2022. 11. 13. ~ 11. 30.
- ▶ (조사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 ▶ (조사내용)
 - (일반인) 항생제 사용행태, 항생제 내성 지식, 정보습득경로 등
 - (의사) 항생제 처방행태, 항생제 내성 인식, 관련 교육 경험, 정책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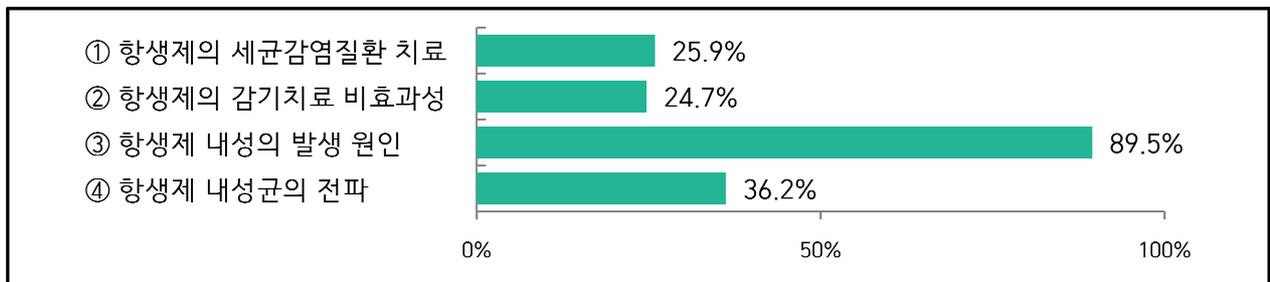
1) 일반인 인식도 조사

- (항생제 사용행태 적정성) ▲처방약의 항생제 포함 여부를 확인, ▲항생제 처방을 요구하지 않고, ▲항생제를 임의복용하지 않는 등의 적절 정도는 70% 전후 수준이었으나^{①②③}, ‘증상 개선 시에도 항생제를 임의중단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는 31.9%에 불과하였음^④

* 항생제 내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처방 시의 용량과 기간을 준수하여 복용하여야 함



- (항생제 및 내성 인지) ▲응답자의 89.5%가 부적절한 항생제 사용으로 내성이 발생한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었으나^③, ▲항생제 용도를 아는 경우는 약 25%^{①②}, ▲내성균이 전파될 수 있음을 아는 경우는 36.2%였음^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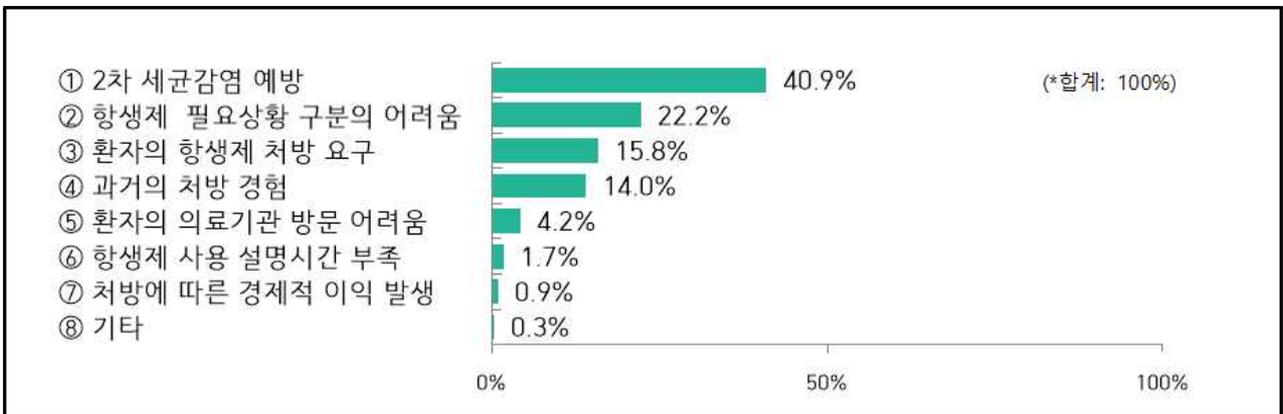


2) 의사 인식도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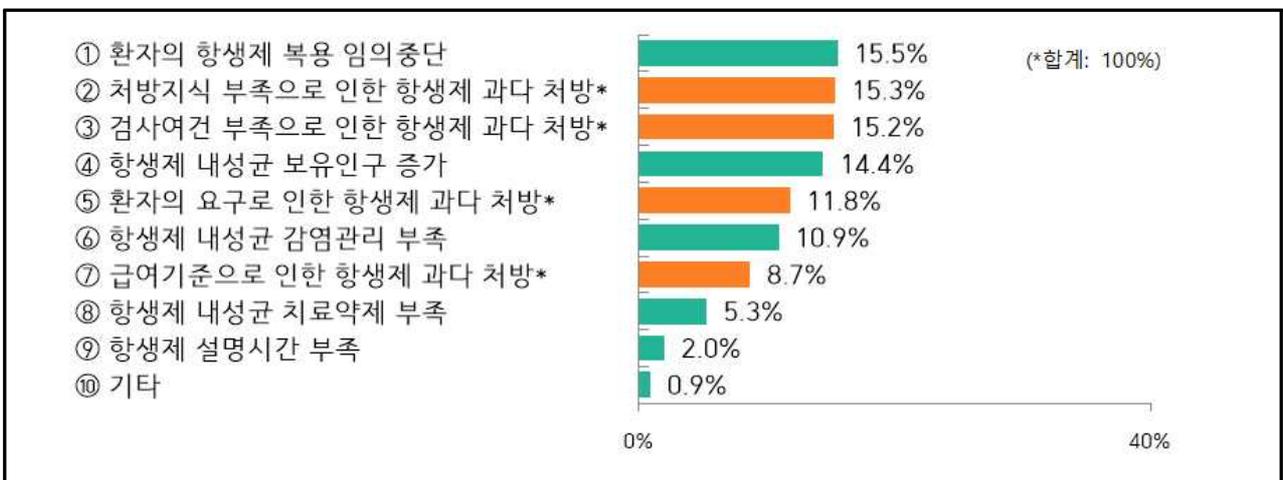
- (항생제 처방 빈도) 의사 10명 중 6명(59.6%)은 항생제가 불필요한 경우 처방하지 않는다고 응답



- (불필요 항생제 처방 원인) 불필요한 항생제는 ▲2차 세균감염 예방을 위해 처방하는 경우가 가장 높았고(40.9%)^①, 그 외에는 ▲항생제 필요상황 구분의 어려움(22.2%)^②, ▲환자 요구로 처방하는 경우(15.8%)^③ 순으로 나타남



- (항생제 내성 증가 원인) 내성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을 ▲환자의 항생제 복용 임의중단(부적절한 복용)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그 외에도 ▲의사의 항생제 과다처방^{②③⑤⑦*}, ▲항생제 내성균 및 내성 전파^{④⑥} 등 응답



* '항생제 과다처방'에 해당하는 사항 별도 표시

□ 온라인 배너



□ 캠페인송 음원(40초)

가사	<p>항생제 많다고 빨리 낫지 않아요 항생제 많다고 유익하지 않아요 처방에 따른 알맞은 양으로 건강하게 내 몸 지켜요 여러가지 불필요한 항생제 내 몸에 쌓여 내성균이 생기면 오히려 위급할 때 효과가 없어요 병원 의사의 처방을 따라요 올바른 방법 정확한 진단으로 건강하게 내 몸 지켜요</p> <p>* 2020년 항생제 내성 예방 캠페인 음원 일부변형</p>
----	--

□ 동영상(6초)

항생제는

필요할 때만
제대로 사용해요



 질병관리청

감기, 인플루엔자에는

항생제가

불필요해요



 질병관리청

리플릿

이벤트 참여 방법

- 1** **나만의 처방전 만들기**
 항생제 내성 예방약을 만들어봐요!
 처방전 도안을 오리고 붙여서 친구와 가족에게 선물해요!
- 2** **항생제 내성 잘알 테스트**
 이제 나도 항생제 내성 잘알?
 항생제 내성 공부 결과를 테스트할 시간!
- 3** **내가 바로 의사 선생님! 포토존 촬영하기**
 소품을 활용해 의사 선생님이 되세요! 멋진 사진을 찍어봐요!
 찍은 사진은 SNS에 해시태그와 함께 게재해주세요!
 #항필제사 #질병관리청
 #항생제내성예방캠페인 #WAAW2023
- 4** **3개 이벤트 모두 참여하면 선물을 드립니다!**

질병관리청에서 주관하는
"항생제 내성 인식도 조사"에 참여해주세요.

참여해주시는 100분께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2023년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주간

"항.필.제.사.의.원"으로 놀러오세요!



기간 2023년 11월 17일 ~ 11월 21일

장소 서울역 2층 대합실 (맞이방)

 질병관리청

항 필 제 사 의 원

항생제는 필요할 때만 제대로 사용하기

항생제 내성의 공금증을 풀기 위해
서울역에 찾아온 항필제사 의원!

항생제 내성 공부하고 항필제사 의원의 의사 선생님이 되어주세요!

항생제란?

항생제는 세균 때문에 생기는 병을 낫게 해주는 약이에요. 감기나 독감처럼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병에는 효과가 없어요.

항생제 내성이란?

항생제 내성이란 세균이 항생제에 점점 더 잘 견디게 되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병을 낫게 하는 게 어려워져요.

항생제 내성 공금증 Q&A

<p>Q 항생제가 뭐예요?</p> <p>항생제는 세균 감염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하는 약물로, 다양한 기원을 통해 세균의 성장을 억제하거나 살균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균의 종류와 감염의 부위에 따라 적절한 항생제가 사용되어야 합니다.</p>	<p>Q 예전에 처방받은 항생제를 복용해도 되나요?</p> <p>아니요. 남은 약을 재사용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오래된 항생제는 효능이 감소되었을 수 있고, 격렬하지 않은 항생제 사용은 내성 발생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증상이나 감염이 발생하면 의사의 새로운 진단과 처방이 필요합니다.</p>
<p>Q 항생제 내성은 어떻게 생겨요?</p> <p>항생제 내성은 항생제 노출 시 세균이 자연 격멸 또는 흡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항생제 내성 발생을 촉진하는 주요 원인은 무분별한 항생제 사용과 항생제 내성균의 확산입니다.</p>	<p>Q 항생제로 감기나 독감도 낫나요?</p> <p>아니요. 감기나 독감은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질환입니다.</p>
<p>Q 항생제 내성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p> <p>기존의 항생제로는 감염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없게 됩니다. 이로 인해 선택할 수 있는 약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치료기간, 의료비용, 사망률 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p>	<p>Q 항생제와 다른 약물 같이 복용해도 되나요?</p> <p>아니요. 항생제와 다른 약물을 함께 복용할 경우, 약물 상호작용으로 항생제의 효능이 변하거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면 의사나 약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p>
<p>Q 항생제 내성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p> <p>항생제를 복용할 때 의사의 안내에 따라 정확한 용량과 기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외에도 손 씻기, 예방접종 등으로 세균 감염을 예방함으로써,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p>	<p>Q 음식이나 음료와 항생제를 함께 복용해도 되나요?</p> <p>아니요. 대부분의 항생제는 음식과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일부 항생제는 음식이나 음료와 함께 복용할 경우 흡수율이 감소하거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Q 손 씻기는 항생제 내성을 어떻게 예방하나요?</p> <p>손 씻기는 감염질환의 전파를 막을 수 있는 기본적인 수단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감염을 예방함으로써 항생제 사용의 필요성을 줄이고, 결과적으로 항생제 내성 발생 빈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p>	<p>Q 반려동물이 아프면 사람이 먹는 항생제를 줘도 되나요?</p> <p>아니요. 반려동물에게는 수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처방된 반려동물 전용 항생제를 주어야 합니다. 사람용 항생제는 동물에게 해로울 수 있으며, 동물 종류에 따라 다른 형태의 항생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p>

□ 포스터

○ 일반인용



항생제는 콧물약이 아닙니다

항생제는 필요할 때만 제대로 사용해요

"바이러스감염은 항생제로 치료할 수 없어요"

바이러스로 인한 감기에
항생제를 예방적으로 사용하면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고,
부작용이나 내성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 자료원

- ① 성인 급성 상기도 감염 항생제 사용지침 권고안. 질병관리청
- ② 국가질병건강포털 항생제. 질병관리청
- ③ Antibiotic Prescribing and Use, CDC,
<https://www.cdc.gov/antibiotic-use/clinicians/adult-treatment-rec.html>

항생제는 필요할 때만 제대로 사용해요

항생제사용,
짧은 기간이
더 좋습니다.



"Shorter Is Better"

"항생제 적정사용관리(스튜어드십)"는
감염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고,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환자들을 보호합니다.

* 자료원

① JAMA Intern Med 176:1254-1255, 2016

② Antibiotic Do's & Don'ts, CDC, <https://www.cdc.gov/antibiotic-use/do-and-dont.html>

③ The WHO AWaRe (Access, Watch, Reserve) antibiotic book, 세계보건기구

○ 요양병원 근무 의료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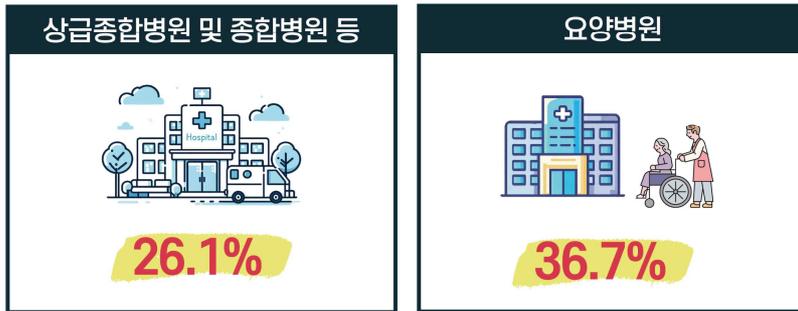
항생제는 필요할 때만 제대로 사용해요



**무증상 세균노는
항생제 치료대상이
아닙니다.**

"집락균은 항생제 치료대상이 아닙니다."

*** 항생제 부적정 처방률 추정치**



*** 자료원**

- ① 「국내 의료기관 항생제 처방 적정성 평가 및 국가차원의 항생제 적정성 평가 로드맵 개발 (2019~2022)」,
「국내 중소병원의 항생제 사용 실태조사 도구 개발 및 시범조사(2020~2021)」
- ② 요로 감염 항생제 사용지침, 질병관리청

2023 항생제 내성 포럼



2023. 11. 22. (수) 10:00 ~ 16:20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 3층 한양 1+2
 ※온·오프라인(영상·대면) 동시 진행



시간	내용	좌장 및 연자
◆ 등록		
09:00 ~ 10:00	등록 및 접수	-
◆ 개회		사회 : 항생제내성관리과장(질병관리청)
10:00 ~ 10:30	행사 개막, 참석자 소개	항생제내성관리과장
	개회사	질병관리청장
	축사	대한항균요법학회장
	유공자 포상	질병관리청장
	단체 기념 촬영	-
◆ 세션 1. 국내외 항생제 사용 동향 및 기초연구 활성화 전략		사회 : 항생제내성관리과장(질병관리청)
10:30 ~ 10:55	국내 항생제 사용감시 현황 및 전략	항생제내성관리과장
10:55 ~ 11:20	국외 항생제 사용 감시 동향과 시사점	박세운 교수(한양대 감염내과)
11:20 ~ 11:45	One Health 항생제 내성균 대응 고도와 및 제어기술 연구	국립보건연구원 약제내성연구과장
◆ 점심		
12:00 ~ 13:00	점심식사	-
◆ 세션 2. 항생제 사용 관리전략		좌장 : 이동건 교수(서울성모병원, 대한감염학회)
13:00 ~ 13:25	항생제 관리 전문가 양성 전략	김신우 교수(대한항균요법학회)
13:25 ~ 13:50	의료 기관 항생제 적정사용팀 운영사례	문송미 교수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내과)
13:50 ~ 14:15	반려동물 관련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 관리전략	박희명 교수(건국대 수의과대학)
14:15 ~ 14:30	질의 및 응답	
14:30 ~ 14:50	휴식	
◆ 세션 3.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좌장 : 김남중 교수(서울대학교병원, 대한감염학회)
14:50 ~ 15:15	필수 항생제 공급 중단 방지와 시급한 항생제 신약 도입 전략 구축	엄중식 교수(가천대 감염내과)
15:15 ~ 16:10	종합패널토론(주제: 항생제 내성 극복) ※ 연자,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관계부처, 심평원, 제약사, 언론 등	
◆ 마무리		
16:10 ~ 16:20	폐회사	의료안전예방국장

